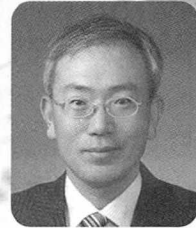


바람직한 새로운 양돈경영모델을 만들자



강 화 순 이사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양돈마케팅

2008년 새해가 밝았다.

양돈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최근의 양돈산업 환경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급변하는 양돈산업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는 마음가짐과 새로운 양돈경영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호에서는 변화되는 양돈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 양돈인이 가지고 가야 할 바람직한 새로운 양돈경영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변화되는 양돈환경과 대응방안

양돈산업은 앞으로 많은 변화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최근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바이오 연료 생산량 증가와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해 야기된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돼지생산비 증가로 나타나 양돈농가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수익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되면 국제 돈가도 필연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지만 국제 경쟁에서는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 질병 피해로 인한 낮은 생산성

계속되는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인하여 폐사율이 높아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높은 폐사율로서는 양돈업의 국제 경쟁력을 가져가기 힘들다.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질병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차단방역, 격리 후보돈사 설치운

영, 철저한 소독, 백신 접종, 환경관리 개선, 영양 개선 및 사양관리 철저로 질병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

질병 근절을 위해 양돈농장 전담수의사제도 등의 도입 및 실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업계 차원의 돼지 콜레라 청정화 사업과 PRRS 안정화 및 청정화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잘 시행된다면 질병도 머지않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다. 수입 돈육 증가

원화강세와 국내 생산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외국의 돈육 수입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산 돈육 수입을 줄이는 방법은 국내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삼겹살 일변도의 소비문화를 개선해나가야 하며, 국산 돈육의 품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예정인 식육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은 국산 돈육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라. FTA 영향

국제 자유무역 추세로 인하여 세계 각국과의 FTA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 돼지고기와도 경쟁 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국산 돈육의 품질 향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미국과의 완전 무관세가 되는 2014년 전까지 사전 준비를 통해 생산성을 국제 수준까지 향상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마. 양돈 계열화

양돈산업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경쟁력이 없는 농가는 도태되고, 경쟁력이 있는 농가는 규모를 키워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기업이나 조합들에 의한 양돈 계열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향후 비람직한 양돈경영모델 방안

최근의 양돈산업은 질병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생산원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축산 물가격은 거꾸로 떨어지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양돈인들이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과거 3년간 고돈가를 맞보았으나 높은 폐사율 때문에 '풍요 속의 빈곤'을 겪으며 '빈익 빈 부익부' 현상을 체험했다.

해상 운임증가와 바이오 연료의 생산량 증가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돼지고기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고, FTA협상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등으로 인하여 축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만성소모성 질병에 의한 폐사가 계속되고 있어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한국 양돈산업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000만두이상의 규모를 유지하느냐? 700만 두 이하의 규모를 유지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실천하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양돈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앞으로의 바람직



한 양돈경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기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사고의 전환이다.

국내 양돈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국제적으로 경쟁우위를 가져 갈 수 있는 산업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국제 경쟁력을 가져 갈 수 있는 산업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질병에 의한 폐사율을 줄이고 양돈 생산성을 올려 나간다면 양돈업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과거에 돼지 1마리를 팔아 7~10만원을 남기던 생각은 잊고 새로운 양돈 경영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양돈 경영모델은 다음과 같이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양돈경영 모델은?

- ◆ 1두당 30,000원 수익 목표
- ◆ 지육Kg 당 300~400원의 수익 목표
(24,000원~32,000원/ 두당 지육 80Kg)
- ◆ 사육 규모 : 모든 150-200두
- ◆ 가족 노동력 중심
- ◆ MSY : 20두 이상
- ◆ 농장 총 사료효율 3.0 이하
- ◆ 농장 총 수익 목표 : 9천만원~1억2천만원

3. 향후 양돈 농가 수?

향후 양돈 농가 수는 급속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그 숫자가 5,000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0두 미만의 농가가 1,000두 이상으로 전환 된다고 가정 시는 1,000두 미만의 농가 7,050호가 1,767호 만 남게 되어 1,000두 이상 3,180농가와 함께 4,967농가만 남게 된다.

살아남기 위한 특단의 생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양돈 사양가수의 변화?

| 규모별 | 사육호수 | 사육두수 |
|----------|---------|-----------|
| 합계 | 10,230호 | 9,659,000 |
| 1,000두 > | 3,180호 | 7,932,000 |
| 1,000두 < | 7,050호 | 1,767,000 |

1,000두 이하가 1,000두의 전업농전환 1,767농가

4,947 농가가 생존

상기와 같은 경영모델을 가지고 양돈산업을 경영해 나간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시장 상황에서 국제적인 생산성 향상과 질병 청정화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먹거리 문화를 창조해, 한 단계 발전한 한국 양돈산업이 되었으면 한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가축분뇨 자원화로 함께만들 선진양돈